

# 開港期の 金融機關의 發展과 그 性格

黃 明 水\*

## 1. 序 言

1876年の 開港부터 1910年の 韓日合併까지에 多數의 民族銀行이 設立되었으나 從來의 記錄에는 明確하지 않는 점이 많다. 從來의 記錄에 의하면 이 期間에 朝鮮銀行, 帝國銀行, 韓興銀行, 大韓天一銀行, 漢城銀行, 韓一銀行(東一銀行)등이 存在하였으나 이들중 朝鮮銀行, 帝國銀行, 韓興銀行 등은 開業後 一年도 못가서 閉店되었으며 大韓天一銀行, 漢城銀行, 韓一銀行만이 그 後에도 延命되어 왔다고 記錄되어 있다.

이러한 記錄은 日人學者 四方博 등에 의해 조작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最近까지 믿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日人學者가 「開業 後 一年未滿에 閉店되었다」는 朝鮮銀行은 開業 後 적어도 數年間은 營業을 계속하였고 帝國銀行은 國立大韓銀行이었음이 高麗大學校의 趙璣濬博士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으며 또한 從來에는 전혀 記錄에 보이지 않았던 大韓帝國 特立第一銀行이라는 새로운 民族銀行의 存在가 필자에 의해 確認된 바 있다.

이와같이 韓末의 民族金融機關의 記錄에는 不明確한 점이 많은 것이다.

당시의 外國金融機關으로서는 日帝의 第一銀行, 第十八銀行, 및 第五十八銀行의 各支店과 中・英國系의 香港上海銀行 仁川代理店이 있었으며 이 외에 露國系의 露韓銀行이 設置되었으나 이 銀行은 營業을 開始하기도 전에 廢業되었다. 香港上海銀行도 그 活動範圍은 仁川地域에 限定된 狹小한 것이었다. 侵略性을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낸것은 日帝의 第一銀行이며 第十八銀行과 第五十八銀行도 역시 侵略性이 강한 銀行이었다.

開港以後의 日帝金融機關에 의한 收奪과 民族의 受離에 대하여서는 그 間 研究가 많이 進行되어 왔으며 日人學者들에 의해 왜곡된 民族金融機關에 관한 記錄에 對하여서도 最近에 와서 조금씩 修正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開港以後의 日帝金融機關의 侵略에 對抗 내지 競爭하여 우리民族側에서도 이른바 民族銀行의 設立을 서둘렀던 것이다. 즉 日帝와의 競爭 및 對抗 내지 抗日 排日思想이 開港期의 民族企業이나 民族金融機關의 設立에 있어서 보였던 것이다. 그것이 日人學者들의 왜곡된 記錄에 의해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것이다.

本小論에서는 日人學者들에 의해 왜곡된 記錄을 修正하며 開港을 맞이하여 우리民族側에서 보인 民族의反應 내지 對應策을 民族金融機關의 設立, 發展 및 性格에 관한 研究를 통하여 살펴보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헌이 아직 충분히 發見되지 못해 여기에서는 주로 趙璣濬박사에 의해 밝혀진 문헌과 필자가 새로 確認한 문헌에 의해 上記 目的에 입각하여 研究를 進행할가 한다. 물론 새로운 문헌 내지 記錄이 發見되는데로 本論을 補完한 생각으로 있다.

\* 檀國大 商經大 教授

## 2. 民族銀行의 設立 및 發展

韓國 최초의 民族銀行인 朝鮮銀行이 設立된 것은 1896年이다. 그 후 多數의 民族銀行이 記立되었는데 日人學者 四方博에 의하면 「甲午以後 朝鮮銀行, 韓興銀行, 帝國銀行 등이 連이어 設立되었으나 開店後 1年未滿으로 閉店」되었다고 한다<sup>1)</sup>. 그 閉店理由는 經營不振 規模의 零細性, 貴族의 私金庫化, 經營能力不足 등이라고 한다.

이 외에 民族銀行으로서 1899年에 大韓天一銀行, 1903年에 漢城銀行, 1906年에 韓一銀行(東一銀行)이 각각 設立되었는데 이들 銀行은 延命하여 營業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sup>2)</sup>.

그런데 四方博의 「一年未滿에 閉店」되었다는 朝鮮銀行은 建陽元年(1896年) 6월에 安顯壽, 金宗漢, 沈相薰등의 發起로 設立되어 翌年인 1897年 2月 10日에는 營業을 開始하였고 初代銀行長에 安瀾壽가 就任하였으며 이 銀行은 開業初부터 國庫出納의 業務를 擔當했고 또한 同年 8月 21日에는 光州, 晉州, 黃州, 平壤, 開城에 支店을 設置코자 度支部의 認可를 얻었다. 그러나 이 銀行은 光武 4年(1900年)에 權在衡이 銀行長이 되면서 名稱을 韓興銀行으로 改稱했다.

이 朝鮮銀行은 創立後 적어도 5, 6年間 營業을 계속하였다는 證據가 당시의 「독립신문」의 報道등으로 알 수 있다고 趙璣潛博士는 指摘하고 있다<sup>3)</sup>.

그것뿐만 아니라 朝鮮銀行이 創立된 후 建陽2年(光武元年 1896年)에는 여러개의 民族銀行이 創立되었는데 四方博이 이 무렵에 創立되었다는 帝國銀行도 실은 帝國銀行이 아니라 國立大韓銀行이라고 한다. 「大韓銀行은 장차 國立中央銀行을 目標하고 創立키로 한 듯하나 우선은 皇室과 發起人이 合資하여 된 것 같다」고 「독립신문」(1898年 9月 7日字)을 引用하면서 趙璣潛博士는 말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 이상 國立大韓銀行에 관한 문헌이 나타나지 않아 그 후의 動態는 알 수 없다.

上記의 朝鮮銀行이나 國立大韓銀行에 關해서는 「독립신문」에 나오는 記事 이외에는 뚜렷한 문헌이 나타나지 않아 그 이상 더 상세히 알 길은 없으나 적어도 四方博을 비롯한 日人學者들이 傳하고 있는 것과는 그 內容이 다른 것만은 確實하다.

漢城銀行에 關하여서도 創立後 營業이 不振하여 곧 閉店된 것으로 傳해지고 있으나 事實은 그렇지 않는 것이다. 즉 漢城銀行은 光武元年(1897年) 2월에 創立되었는데 創立後 3년이 되는 1899년까지는 營業을 계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株主에게 利益을 分配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漢城銀行은 한 때 營業이 不振하였으나 光武 7年(1903年) 2월에 銀行名稱을 公立漢城銀行으로 改稱하였으며 후에 다시 株式會社 漢城銀行으로 改稱되어 계속 存續하였던 것이다<sup>5)</sup>.

大韓天一銀行은 光武 3年(1899年) 1月 30일에 度支部大臣의 認可를 얻어 設立되었는데 初代銀行長에는 閔丙奭이 就任하였다. 大韓天一銀行도 1905年 이후 營業이 不振하여 閉店의 危機에 놓여진바가 있으나 政府貸下金으로 延命되다가 1906年 以後에 다시 본체도

1) 四方博, 「朝鮮に於ける近代資本主義の成立過程」,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朝鮮社會經濟史』收錄, 東京刀江書院, 1933年, 89~90面.

2) 朝鮮銀行編輯, 『鮮銀行二十五年史』, 1934年, 48面.

3) 趙璣潛,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高大附設亞細亞問題研究所, 1973年, 296~297面.

4) 上揭書, 298面.

5)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一潮閣, 1970年, 14~19面.

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1905年是金融恐慌期이며 民族銀行이 資金面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時期였던 것이다. 韓末에 設立된 初期의 民族銀行은 政府 및 皇室產財의 保管과 이에 대한 金融을 調達하는 것에 重點을 둔 朝鮮銀行이나 大韓天一銀行과 漢城銀行과 같이 一般民間人을 상대로 하는 환전 및 資金融通에 重點을 둔 銀行으로 大別할 수 있다. 더욱 民族銀行은 漢城銀行만이 아니라 다른 銀行도 모두 前近代의 貸金業의 양상을 띠고 經營되고 있었으나 漢城銀行이 특히 두드러지게 그러한 性格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民族銀行은 韓末의 政界가 不安한 가운데 資金의 뒷받침은 토틈치 못하였으나 經營狀態는 日人學者가 말하는 것만큼 不振하거나 不實한 것은 아니었다. 즉 民族銀行 中에는 經營난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努力하에 利益의 配當까지 보인 銀行도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 民族銀行 이외에 光武 4年(1900年)에는 大韓帝國 特立第一銀行(以下 特立第一銀行이라함)이 設立되고 있다. 同銀行에 關하여는 從來의 記錄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sup>6)</sup>.

지난 1974年 8月에 江原道 江陵에서 同銀行의 創立 章程 및 定款이 發見되었으며 同定款 末尾에 光武 4年이라는 年度가 記入되어 있어 그것이 韓末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皇城新聞에 光武 4年(1900年) 9月부터 11月 사이에 特立第一銀行에 關係되는 記事가 몇몇 掲載되어 있어 위의 事實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여튼 지금 이 時點에서는 前記의 章程 및 定款과 이 記事가 唯一한 資料인 것이다. 이들 資料에 의하면 鍾路의 苧布 望門 兩床廬民들에 의해 特立第一銀行이 設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光武 4年(1900年) 10月 1日 皇城新聞에 「苧布 望門 兩床廬에 銀行을 設始한다 하기로 該廬民 五, 六十名이 大, 七日을 農部에 齊進呼訴하더니 其訴가 依施되었더라」는 記事가 있로, 이로 미루어 上記 兩廬民 5, 60名이 農部(農商工部)에 特立第一銀行의 設立을 呼訴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同年 10月 26日 記事에 의하면 西江 朴延薰氏家에 支社를 두고 一株當(每股金) 百元으로 株金을 모집하고 있으며 同新聞 11月 3日 廣告란에는 臨時事務所를 大安門前 二層閣에 둔다는 廣告가 나와 있다. 이와같이 支社나 臨時事務所의 設置 및 株金 모집의 記事가 掲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特立第一銀行이 創設되었다는 것은 確實하다. 그러나 營業을 開始하였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特立第一銀行이 廬人 즉 特殊商人들에 의해서 創立된 點은 從來의 다른 民族銀行이 皇室이나 혹은 高級官僚 내지 官에서 은퇴한 者들에 의해 創設된데 비해 特異한 點이라고 할 수 있다.

### 3. 特立第一銀行의 性格

特立第一銀行의 創立 章程과 定款에 의하면 資本金은 250萬元, 股數(株數)는 2萬5千股 每股當 100元씩으로 規定되어 있다. 더욱 資本金은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쳐 增額할 수 있다(定款 第2章 第5條). 이 資本金은 當時의 다른 民族銀行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다. 大韓天一銀行의 創立時의 資本金은 定款에 의하면 5萬6千元이며 漢城銀行의 資本金은 20萬元(1903年의 再起時에는 200萬圓 <實質資本金은 3萬5千元>), 韓一銀行은 15萬元, 朝鮮銀行은 20萬元, 國立 大韓銀行은 5萬元이다. 이에 비하면 特立第一銀行의 資

6) 抽稿, 「大韓帝國 特立第一銀行에 관한 史的研究」, 檀大『商經論叢』第12.13輯(合併號), 1975年 12月, 103~116面 참조.

本金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參考로 말해서 日本의 第一銀行(本店)의 資本金은 3百萬圓(日貨), 實質資本金은 244萬8百圓이다. 同銀行의 부산支店 設置에 있어서는 日本政府로부터 銀貨 10萬圓을 貸與받고 이를 設置하고 있어 日帝 第一銀行의 韓國에서의 活動은 銀貨 10萬圓으로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特立第一銀行은 資本金중 「六千二百八十股(株)는 內帑으로 劃下하고 一萬八千七百二十股는 人民이 合資」터록 規定짓고 있다. 즉 皇室에서 62萬8千元, 人民(塵人)이 187萬2千元 都合 250萬元의 出資로 資本金을 調達토록 規定짓고 있다(章程 第4條). 定款 第2章 第7條에 의하면 營業은 資本金 總額의 5分の 1인 50萬元이 拂入되면 開始할 수 있는데 50萬元만 하여도 巨額인 것이다.

大韓天一銀行의 경우에는 資本金 5萬6千元 중 半額부터 3分の 1은 宮內部 및 政府에서 附與할 뿐더러 이 외에도 宮內部 및 政府는 若干의 金額을 定期附與 하도록 規定되어 있다(大韓天一銀行 定款 第一章 第6條). 國立 大韓銀行의 경우에도 資本金 5萬圓중 1萬圓은 皇室에서 나머지는 發起人 20인이 각각 1천圓씩 出資토록 되어 있다. 다른 民族系의 銀行에서도 皇室이나 政府의 出資가 많다. 이와같이 當時의 民族銀行이 皇室이나 政府로부터 巨額의 支援을 받게되어 있었는데 비해 特立第一銀行은 巨額의 資本은 人民(塵人)으로부터 擧金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特立第一銀行은 營業에 있어서 「地金이나 砂金을 賣買할 事」라는 規定이 있다. 이러한 規定은 大韓天一銀行은 물론 漢城銀行이나 韓一銀行에도 없는 規定이다. 그러나 日帝의 第一銀行 韓國支店의 營業에서는 「地金銀의 買入」은 重要한 業務가 되어 있다. 또한 特立第一銀行의 章程에는 國庫金의 取扱도 規定되어 있다. 國庫金은 日帝 第一銀行 韓國支店도 取扱하고 있다. 特立第一銀行에서는 銀行長과 副銀行長을 株主總會에서 株主중에서 選出(定款 第4章 第18條)하는 등 民主的이고 自律性이 비교적 많은 規定이 있으며 運營方針도 民主的이다. 이는 당시의 다른 民族銀行이 皇室이나 政府의 干涉이 많은데 비해 特異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特立第一銀行은 資本金의 規模, 營業의 內容, 運營 및 組織으로 보아 當時의 다른 民族銀行에 비해 훨씬 앞선 것이며 특히 塵人——特殊商人이 中心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民族銀行에 비해 特異한 點이다. 特立第一銀行은 여러 面으로 보아 日人들이 近代銀行이라고 自稱하던 日帝의 第一銀行 韓國支店과 競爭되는 새로운 民族系의 銀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特立第一銀行과 比較하기 위해 日帝의 第一銀行을 비롯한 第十八銀行, 第五十八銀行의 性格과 기타 外國銀行의 性格을 要約하여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 4. 外國金融機關의 性格

##### A) 日帝支店銀行의 性格

江華條約 締結이후 日帝의 第一銀行을 비롯하여 第十八銀行 및 第五十八銀行이 韓國에 進出해 왔으며, 이 뒤를 이어 第百二銀行, 日本興業銀行京城支店, 周防銀行(山口縣)釜山支店 및 長崎貯蓄銀行 등이 進出해 왔으며, 密陽에서는 日本人이 密陽銀行을 設立하였다. 그 후 東洋拓殖會社에 金融部가 設置되었다.

이들 중 開港期에 韓國에서 支配的인 活動(侵略活動)을 한 것은 第一銀行이며 第十八銀行과 第五十八銀行이 그 뒤를 따랐다. 이하에서 이들 三支店銀行의 性格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sup>7)</sup>.

7) 拙稿, 「韓末에 있어서의 外國金融機關의 侵略에 관한 研究」, 檀大附設東洋學研究所, 『東洋學』第

日帝의 第一銀行이 韓國에서 經營한 事業內容은 一般銀行業務 이외에 ①海關稅의 取扱, ②地金銀의 買入, ③貨幣의 整理, ④韓國政府에 對한 貸與, ⑤銀行券의 發行, ⑥韓國國庫金의 취급 및 ⑦韓國中央銀行으로서의 業務 등이다<sup>9)</sup>. 이러한 業務는 1878年の 金山支店設置 이후 1909年の 韓國銀行의 設立과 同銀行에 일체의 業務를 一제할 때까지 점차 실시・擴大되어 왔다.

이러한 第一銀行의 業務중 金塊의 買收에 關하여 살펴보면 1901년부터 1907년까지에 2千5百30萬2千圓(5,758貫49匁)이나 買收하고 있으며 1907년에 있어서 韓國에서 日本에 流出된 金塊의 84%가 日帝第一銀行에 의해 취급되었던 것이다<sup>10)</sup>.

第十八銀行과 第五十八銀行의 營業에 關하여 살펴보면 兩銀行 모두가 金塊의 買收외에 在韓日本人(주로 同郷出身의 日本商人)을 相對로 商業銀行으로서 一般銀行業務를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 각종 支店銀行은 「在留日本商人의 機關銀行」으로서 韓國에 進出해 온 것이다<sup>11)</sup>. 즉 이들 支店銀行은 韓國에서 侵略行爲를 해온 日商人들에게 그 侵略에 필요한 資金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1909년에 있어서 各 支店銀行의 貸出金중 商業資金으로 貸出된 것은 第一銀行 88%, 第十八銀行 96%, 第百三十銀行(第五十八銀行) 83%이다<sup>12)</sup>. 이로 미루어도 各 支店銀行들이 日帝在韓 商業 및 商人을 資金面에서 支援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B) 기타, 外國金融機關의 性格

日帝의 支店銀行 이외에 韓國에 進出해온 銀行으로서는 香港上海銀行과 露韓銀行이 있다. 그러나 이들 外國銀行의 活動은 보잘것이 없었다. 즉 中國의 官僚資本과 英國의 商人資本이 結合되어 創設된 香港上海銀行이 1897년에 仁川에 代理店을 設置하였는데 이 銀行은 京仁地方에 在留하는 中國(淸國) 및 英・美商人들의 送金業務를 擔當하였다. 그 후 仁川에서 가장 有力한 外國商社로 알려진 타운센드商會가 同銀行의 代理業務를 맡게 되었다. 香港上海銀行은 그 당시 韓國과 密接한 國交關係를 맺고 있었던 中國・英國 및 美國의 利益關係를 代辦하는 金融機關으로 볼 수가 있었으나 第一銀行에 比하여 그 活動分野가 매우 狹小하였다<sup>13)</sup>. 즉 香港上海銀行의 去來는 仁川 在住의 2,3의 洋商(英・美商人) 및 淸國商人에 限定되었고 그 業務로는 外換의 取扱 및 약간의 貸金業務를 취급하고 있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다<sup>14)</sup>. 1898年 3月에는 露西亞人財政顧問 알레키세프(Alexieff)에 의하여 露韓銀行이 設立되었는데 同銀行은 營業을 開始하지 못한 채 設立 1個月 후에 閉鎖되었다. 그러나 露國系의 露韓銀行의 設立計劃은 日帝의 第一銀行에 큰 威脅을 주었으며, 이러한 露韓銀行이 만일 閉鎖되지 않았다더라면 「第一銀行에 대하여 容易치 않는 強敵」이 되었을 것이라고 四方博은 말하고 있다<sup>15)</sup>. 1888年 11月 露西亞人 Alexieff가 韓國財政顧問이 되자 露韓銀行의 設立이 計劃되었고, 同銀行은 日帝의 第一銀行과 비슷한 業務內容을 가지고 있었다. 그 開店은 1891年 3月 1日이었으나 Alexieff가 同年 3月에 財政顧問을 辭任하자 翌月인 4月 9日에 閉鎖되었다. 즉 同銀行은 開店은 하였으나 營業을 開始 못한 채

一輯, 1971年 305面以下 참조.

8) 長谷川 千代松編, 『第一銀行五十年小史』, 東京, 1925年, 72面.

9) 拙稿, 「韓末에 있어서의 外國金融機關의 侵略에 關한 研究」, 前掲論文, 317面 第7表 参照.

10) 『日本金融資料』明治・大正編, 第6卷, 1957年 1192面 참조.

11) 拙稿, 前掲論文, 321面, 第14表 참조. (더욱 同表는 朝鮮總督府 統計年報(第4次) 1909년에 의거 作成한 것임).

12) 高承濟, 前掲書, 4面.

13) 四方博, 前掲書, 89面; 信夫淳平, 『韓半島』51面.

14) 四方博, 上掲書, 77面.

閉鎖되었다. 지금 露韓銀行의 業務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즉 露韓銀行은 資本金 50萬 兩피로서 그 事業內容은 普通銀行業務 외에 ①開港場에 있어서의 不動產 및 각종 商品의 賣買 ②河海 路 및 陸路에 의한 貨物의 運送 및 그 保險事業 ③ 兩·달터·파운드 및 기타 地方의 貨幣에 대한 兌換券의 發行 ④韓國의 收稅 및 기타 國庫에 관한 事業 및 韓國政府의 許可를 얻어 韓貨의 鑄造 및 韓國國債 利子의 支拂 ⑤每回 露國大藏大臣의 許可를 얻어 韓國에 있어서의 각종의 利益權의 獲得(鐵道施設權 및 電話架設權 등)등이다. 이러한 特殊銀行으로서의 性格은 日帝의 第一銀行 韓國支店의 性格과 비슷한 것이었다. 日帝의 第一銀行의 侵略性과 비슷한 侵略性을 가진 露韓銀行은 결국 日帝의 妨害에 의해 事業을 開始 못한채 閉鎖되었던 것이다.

## 5. 結 語

光武 元年부터 4年(1897年~1900年)頃에 民族銀行이 多數 設立되었는데 特立第一銀行도 이 무렵에 京城에 設立되었다. 그러나 營業을 開始하였는지 어떤지는 記錄이 없어 알 길이 없다. 다만 이 銀行이 塵人 즉 特殊商人을 中心으로 設立된 점은 다른 民族銀行이 皇室이나 官僚에 의해 設立된데 비해 特異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同銀行은 資本金의 規模, 營業의 內容·組織·運營面으로 보아 다른 民族銀行에 비해 훨씬 앞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特立第一銀行은 民主적이고 自律性이 보다 많은 規模가 큰 銀行이라고 할 수 있다. 立第一銀行은 여러점으로 미루어 日帝의 第一銀行 韓國支店과 競爭되는 銀行이라고 할 수 있다. 當時中央銀行의 設立을 目標로 한 國立大韓銀行이 營業을 했는지 혹은 營業을 할 단계까지 갔는지 못 갔는지 記錄이 없어 알 수가 없듯이 特立第一銀行도 그 후의 記錄이 나타나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一年未滿에 閉店」되었다는 朝鮮銀行이 후에 名稱을 韓興銀行으로 바꾸어 적어도 數年 營業의 한 것이 밝혀진바와 같이 새로 記錄이 發見되는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그 内幕이 밝혀질 날이 멀지않아 올 것이다. 日帝는 自己네의 第一銀行 韓國支店과 性格이 비슷한 露韓銀行의 開業을 妨害하여 그것을 廢業시킨 일이 있다. 즉 日帝의 第一銀行이나 露韓銀行은 韓國金融界를 支配하려는 意圖을 가지고 設立되었으나 日帝의 第一銀行은 自己들과 競爭이 되는 露韓銀行을 日帝의 權力을 背景으로 閉店시키고 만 것이다. 國立大韓銀行이나 大韓帝國 特立第一銀行의 경우에도, 특히 資本規模나 營業內容에 類似한 점이 많은 特立第一銀行의 경우도 혹시나 日帝의 妨害 내지 強壓때문에 그 記錄조차 적은 것이 아닌지 疑問이 남는다. 한편 이 무렵에 設立된 漢城銀行이나 大韓天一銀行의 경우에도 資金 및 經營難으로 한때 經營不振의 狀態에 놓여 閉店의 危機에 빠진 經驗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國立大韓銀行이나 特立第一銀行의 경우에도 資金募集에서나, 經營에 있어서 資金難에 부딪쳐 營業을 할 수가 없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아뭏든 資金 및 經營難과 日帝의 妨害가 이들 民族銀行의 發展을 阻止한 것이라고 推測된다.

위의 여러점에서 確實한 것은 當時 民族銀行들이 日人學者 四方博이 말한 것처럼 「開店 1年未滿에 閉店」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從來의 記錄에는 잘못 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當時 民族界에서도 日人和 對抗 및 競爭하여 近代的인 民族銀行을 設立하려는 꾸준하고 줄기찬 움직임이 일부에서 보였던 것이다. 그 經營이 대부분, 튼튼하지 못한 것은 마치 開港期의 民族企業가들이 日人 企業가들과의 競爭 및 對抗 내지 抗日·排日의 思想

15) 露國大藏省編, 日本農務省譯, 『韓國誌』, 1900年, 91面.

아래 民族企業을 創設하였으나 그들이 近代의 企業經營의 經驗도 없고 收支打算을 생각하지 않는 赤字經營으로 또는 日帝의 妨害도 있어 그 대부분이 運營이 잘 되지 못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開港期에 設立된 民族金融機關은 비록 그 經營에 있어서 튼튼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日帝의 競爭 및 對抗 내지 抗日·排日의 思想 아래 設立된 것이며, 이는 開港을 맞이하여 韓民族이 日帝의 收奪을 당하면서도, 한편에서는 日帝와 競爭 및 對抗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이와 같이 開港期の 民族의 反應 내지 對應策은 民族金融機關의 움직임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日帝는 그러한 反應 내지 對應策의 싹을 송두리 채 뿌리 뽑으려고 強權으로 눌러 온 것이다. 開港期の 民族金融機關에 대한 日帝의 過少評價한 및 왜곡된 記錄은 日帝의 強壓과 侵略性을 은폐하기 위한 그릇된 術策에 의한 것이었던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趙璣潛,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高麗大學校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 1973年
2.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 一潮閣, 1970年
3. 韓國商業銀行, 『大韓天一銀行公牒存案解說』, 1960年
4. 朝興銀行編, 『朝興銀行六十五年史』, 1965年
5. 韓國商業銀行, 『大韓天一銀行日史』 1960年
6. 『韓國金融百年』, 1970年
7. 四方 博「朝鮮における近代資本主義の成立過程——その基礎的考察」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 『朝鮮社會經濟史研究』, 東京 江刀書院, 1933年
8. 長谷井 千代松編, 『第一銀行五十年小史』, 東京 1926年
9. 第一銀行 80年史編纂室, 『第一銀行史』, 東京, 1947年
10. 日本銀行調查局編, 土屋喬雄監修, 『日本金融資料』明治・大正編, 第6卷, 1957年
11. 植木三郎編, 『韓國の金融事情』, アジア經濟研究所, 1969年
12. 相川尙武, 「朝鮮に進出した日本の普通銀行」, 財團法人 友邦協會編(日本). 『朝鮮近代史料研究』, 1963年
13. 拙稿, 「韓末에 있어서의 外國金融機關의 侵略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東洋學』第1輯, 1971年
14. 拙稿, 「大韓帝國特立 第一銀行에 관한 史的研究」, 檀國大學校 商經大學, 『商經論叢』第12・13輯, 1975年
15. 大韓帝國特立第一銀行, 『定款・章程』光武4年(1900年)(1974年 8月發見).
16. 『皇城新聞』光武4年(1900年 9月~11月의 記事참조).
17. 第一銀行編, 『第一銀行 30年誌』, 1959年
18. 山口精編, 『朝鮮産業誌』, 下卷, 1911年
19. 朝鮮銀行編, 『朝鮮銀行二十五年史』, 1934年